

일본 근세의 서적과 학문의 전파

- 19세기 문인 다카이 코잔(高井鴻山)의 장서 연구 -

스미요시 토모히코(住吉朋彦)*

1. 머리말
2. 다카이 코잔(高井鴻山)의 생애
3. 코잔문고와 코잔의 한학
4. 코잔의 和學과 난학
5. 코잔문고에 나타난 서적유통 양상

1. 머리말

다카이 코잔(高井鴻山)은 1806년(文化 3) 신슈 오부세(信州 小布施, 長野縣上高井郡 小布施町)의 이치무라(市村) 가문에서 태어나 1883년(明治 16) 타계한富商이다. 오부세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오랜 遊學 생활을 겪고 만년에는 도쿄, 나가노(長野)에 거주하며 후학 양성에 힘쓴 인물이다.¹⁾ 코잔의 장서는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그 지식과 교양의 연원을 보여주고 있다. 코잔은 근세 말기 일본의 항촌에서 책을 수집하고 지식을 쌓아 사회 활동을 펼쳤으며 시문, 서화의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과 일본 사회에 공헌한 인물로서, 당시 지식인의 삶에 끼친 서적의 영향을 살피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 일본 게이오(慶應義塾) 대학 斯道文庫 교수.

1) 코잔의 전기는 岩崎長思 編, 1933 『高井鴻山小伝』, 上高井教育會 및 高井鴻山伝編纂委員會編 編, 1988 『高井鴻山伝』, 小布施町에 자세하다.

2. 다카이 코잔(高井鴻山)의 생애

1) 오부세(小布施)와 코잔(鴻山)

코잔이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오부세는 에도시대의 정치 조직상으로는 마쓰시로번(松代藩)의 관할에 있었다. 마쓰시로번은 信州 北部의 増科·更級·水内·高井의 4군을 다스리며, 남쪽으로는 지쿠마가와(千曲川) 강이, 서쪽으로는 사이가와(犀川) 강이 흘러들어 합류하는 나가노 분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611년(元和 8)부터는 사나다(眞田) 가문이 세습하여 코잔의 청년기는 사나다 유키쓰라(眞田幸貫)의 치세였다.

마쓰시로번의 중심은 사나다 가문의 성이 있는 마쓰시로였는데 오부세는 千曲川西岸을 남북으로 달리는 에치고(越後, 新潟縣)의 여러 번으로 통하는 가도의 요충지여서 상업적으로 번영했다.

코잔의 집안인 이치무라 가문은 에도 중기(18 세기)에 발흥해 운송업과 양조업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코잔의 조부 이치무라 사쿠자에몬(市村作左衛門) 때에 교토 부근(관서지방)으로 진출, 교토의 명가인 쿠죠(九條) 가문과 히가시쿠제(東久世) 가문의 공무를 담당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마쓰시로번(松代藩), 이이야마번(飯山藩) 등 호쿠신에쓰(北信越) 여러 번들의 물자조달과 재정에 깊이 관여했다.

2) 코잔의 遊學 시대

코잔은 호이며 이름은 健, 자는 士順으로 통상 산쿠로(三九郎)라 칭했다. 이치무라 가문은 상인의 신분이지만 실제 세력은 일반 무사를 능가해 무사의 신분과 대등하게 여겨지는 名字帶刀(이름을 짓고 칼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로 에도시대 무사 신분을 상징하는 특권)를 허가받아 '다카이(高井)'라는 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코잔은 이치무라 가문의 후계자로서 유년기에 교육을 받고 1820년(文政 3) 15세의 나이에 교토로 가서 마시마 쇼난(摩島松南)에게 한학을, 누키나 카이오쿠(貫名海屋)에게 글씨를, 간쿠(岸駒) 등에게 그림을 배우는 등 학문과 교양의 기반을 닦았다. 1827년 무렵부터는 당시 일류 시인으로 인정받던 야나가와

세이간(梁川星巖)에게 시를 배웠다.

1833년(天保 4) 즈음 주거지를 옮긴 세이간(星巖)을 따라 에도로 옮겨 세이간의 소개로 사토 잇사이(佐藤一齋, 1772~1859)의 문하생이 되었다. 잇사이는 막부의 학교인 昌平齋의 교관인데, 주자학의 정통을 강의하였지만, 한편으로 자신은 양명학에 심취한 학자였다. 잇사이의 문하에서 마쓰시로(松代) 번사인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등과 함께 배우며 잇사이의 문인인 하야시 카쿠료(林鶴梁)가 있는 에도성에 출입했다. 이 기간 동안 국학과 난학을 익히고 와카(和歌)와 하이카이(俳諧)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대략 17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836년(天保 7)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3) 문인 코잔

1840년(天保 11)에 부친 熊九郎가 타계한 이후 당주로서 가업을 이어 이치무라 가문의 경영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코잔은 文事도 잊지 않고 사쿠마 쇼잔과 마찬가지로 마쓰시로의 번사인 야마데라 죠잔(山寺常山)과 교류하여 ‘三山’이라 불렸다. 함께 근처의 치쿠안(竹庵) 카츠몬(活文) 禪師의 문하에 들어가 禪行 뿐만 아니라 唐音과 琴瑟을 배워 시음을 즐기는 등 호쿠신(北信) 지방의 문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지방에서는 시를 짓는 모임이 많이 생겨나 여기저기 떠돌던 전문시인을 매개로 도시의 출판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였는데, 코잔 또한 타케우치 요우엔(竹内楊園)이 편집한 『撄鳴集』에 작품을 실어 중앙에까지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 사이 서화가로서의 기량도 닦아 산수도, 국화의 사생을 특기로 한 화조도, 그리고 독특한 요괴화를 즐겨 그렸다. 이들 그림의 自讚이나 書幅도 다수 전하여 오부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림과 관련해서는 1845년(弘化 2) 이후 에도 유학 중 알게 된 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를 초청해 그의 체류를 지원하며 많은 우키요에(浮世繪)를 그리게 하면서 교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4) 막부 말기의 유신과 코잔

에도 막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던 이 시기, 1853년(嘉永 6) 아메리카 합중국 폐리 제독의 내항 이후 여론이 尊皇攘夷로 들끓자²⁾ 코잔도 에도로 가서 田口江村와 아오야마 셋사이(青山拙齋) 등에 동조하여 公武合体와 해안 방비를 주장하는 등의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한편 막부에 미곡을 현상하여 에도만의 포대 건설을 돋고 幕閣(막부의 최고 수뇌부)의 마쓰다이라 순가쿠(松平春嶽)의 요구에 따라 해안 방비책을 적어 올렸다. 그 후 고향에서 돌아와서는 마쓰시로 번의 사쿠마 쇼잔의 개혁을 도와 주장을 일부 전환하여 개국론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1864년(元治 원년) 쇼잔이 攘夷派의 흥기에 쓰러진 후 나라의 움직임이 급진적인 타도 막부에 이르게 되면서 메이지유신을 맞게 된다. 마쓰시로 번은 신정부를 따랐지만 민정이 불안정하여 코잔은 치안 유지를 위해 힘썼다. 이 때 코잔이 그간 쌓아 온 정부 요직들과의 관계가 정황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

유신 후에 혼란이 일단락되고 廢藩置縣(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를 중앙 관할의 부와 현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이 행해진 1871년(明治 4) 코잔은 집안의 경영을 아들 辰二에 물려주고 도쿄로 거주를 옮겨 문부성 편집국과 東京府로 출사했다. 이때부터 교육에 관심을 두고 1875년에 田口江村의 권유로 도쿄에 다카이(高井) 학교를 열어 국학과 한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가, 1877년에 이를 폐쇄하고 나가노로 장소를 옮겨 1879년부터 高矣義塾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 사이 1878년에는 저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서의 일부를 잃게 된다. 만년을 교육에 헌신하고 1883년 78세로 고향에서 타계했다.

이상에서 살핀 코잔의 생애와 그의 장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고잔의 시각에서 본 에도 후기 일본 장서의 세계는 어떠한 경관을 나타낼 것인가. 다행히 코잔의 별장에 수장되어 있던 장서의 잔본들이 1924년(大正 13) 손자 精造에 의해 小布施町立 도서관에 기증되어 「코잔문고(鴻山文庫)」로 보존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러한 의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2) 尊皇攘夷는 천황기를 중시하고 막부의 역할을 제한하며, 국토를 신성시하고 외국인을 배격하고자 한 사회사상을 의미한다.

3. 코잔문고와 코잔의 한학

1) 漢籍의 지위

현전하는 코잔문고에는³⁾ 중국인 저작인 漢籍 71부 480점, 準漢籍 8부 18점,⁴⁾ 미국인의 저작 1부 1점, 일본인의 저작인 和書 150부 641점으로⁵⁾ 총계 230부 1,140점이 소장되어 있다. 또 한적 중 5부 33점, 화서 중 8부 76점, 합계 13부 109점은 인도 유럽인의 저작을 한문이나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한적과 준한적의 부수가 79부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지방에 있어서도 한학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도시대의 도쿠가와 막부는 문화를 규제하여 유학을 국교의 유품으로 하고 주자학을 정통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각 번의 시책을 통하여 지방에도 침투했다. 그리고 유학 연구를 통한 한문의 발달은 여러 방면의 중국문화로 일본인의 관심을 돌리게 해 한적의 수입과 재생을 촉진했다.

2) 儒學

코잔의 장서에서 한학 방면의 특색을 살피면 유학 사상과 문학, 서화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의 중심이 되는 경서의 수장을 보면 五經과 四書와 관련된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禮’와 관련된 경전이 부족한데, 이는 현전하는 코잔문고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성리학의 개인적 반성을 촉구하는 경향이 예학을 중시하지 않게 한 것일 수도 있다. 四書의 경우는 10종을 헤아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히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자학을 기초로 한 근세의 일본 혹은 동아시아의 경향에 합치할 것이다.

3) 코잔문고의 전모에 대해서는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編, 2014 「小布施町立図書館鴻山文庫分類目録」『斯道文庫論集』 48 참조(http://koara.lib.keio.ac.jp/xoonips/modules/xoonips/detail.php?koara_id=AN00106199-20130000-0291).

4) 일본인이 중국의 고전에 주석을 붙이거나 편집한 책을 ‘준한적’이라 하여 ‘한적’에 덧붙였다.

5) 인도와 유럽인의 저작을 중국인 또는 일본인의 번역한 책은 편의상 한적 또는 和書에 포함하였다.

코잔의 사서의 이해에 대해서는 역시 관학의 기준이 되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훈점본과 코잔의 스승으로 라잔의 학통을 이은 사토 잇사이의 훈점본이 중심인 것 같다. 1789년(寛政 원년) 最勝堂 간행의 ‘羅山訓點本’에는 코잔 자필의 주석도 기입되어 있다.

에도 유학 중 스승이었던 사토 잇사이의 영향이 코잔의 장서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면 코잔은 잇사이가 주희의 『소학』에 해석을 더한 『小學書欄外書』의 목활자본을 2종 갖고 있다. ‘欄外書’란 잇사이가 즐겨 쓰던 주석의 양식인데 판본의 난외에 기입된 유명인의 批注를 옮겨 적는 습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 밖에도 『四書』와 『傳習錄』이 있다.

코잔은 스승에게 배운 것 이외로 청대 유학자의 해설을 참조하였다. 가령 에도시대 후기의 관학을 담당했던 시노자키 쇼치쿠(筱崎小竹)의 해설이 붙은, 陸隨其의 『(四書)松陽講義』를 이용하여 주자학의 새로운 전개를 추구했다. 한편 張金鏡의 비평을 담은 『華萼堂訂四書說約大全合參』을 상단에 덧붙인, 과거 시험을 위한 『사서집주』를 사용하는 등 통속적인 책도 거부하지 않았다. 통속적인 해설과 관련하여 가나(假名)로 쓰고 일본어의 어형에 맞춰 해석한 『經典余師』 종류, 이른바 國字解도 소장하는 등 당시의 취향을 반영한 일반적인 유학의 수용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⁶⁾

코잔이 성리학을 중시한 것은 분량이 많은 『주자어류』와 『성리전서』를 수장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명말의 유학자인 李廷機의 비평이 첨부된 만력 판본을 수장하고 있다. 또한 코잔이 양명학을 접한 사실은 종래의 「鴻山傳」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陽明要書』의 일부라 추측되는 목활자본 『王文成公』 등을⁷⁾ 입수하여 직접 馮柯 등의 『馮貞白先生求是編』을 베낀 점에서도 양명학에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명학에 경도되었다고까지는 말하기 힘들다. 그저 스승인 잇사이의 영향을 받아 친축하게 여기고 중년 이후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 정도일 것이다.

6) 鈴木俊幸, 2007 『江戸の讀書熱: 自學する讀者と書籍流通』, 平凡社 참조.

7) 永富青地씨와 井上進씨의 가르침에 따른다.

3) 小學

코잔은 한학의 기준으로 성리학을 존중했다. 성리학에서는 경전 의미의 고증을 주희와 그 문인들에게 맡겨 청대의 고증학자와는 달리 문자 언어의 연구는 크게 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잔 또한 小學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코잔이 수장한 사전은 청대의 새로운 것들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字書로 侈世男의 『篆字彙』, 韻書에 王鳴玉의 『通叶集覽』, 安念祖의 『古韻溯源』 등이 있으며, 『篆字彙』와 『古韻溯源』은 청판을 수장하고 있다. 한편 『說文解字』·『玉篇』·『廣韻』 등 문자 고증에 필수인 고전적 사전을 수장한 흔적은 없고, 어디까지나 경전 해석과 일반 독서의 보조, 전각을 포함한 서화가로서의 활동,⁸⁾ 시인으로서의 창작 활동과 관련한 것들뿐이다. 특히 상세한 자필 메모가 들어간 劉文蔚의 『詩韻含英』 小冊 3종을 갖춘 것은 시를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문학

코잔의 시문집은 근년까지 공간되지 않았지만 필사 원고본이 출신지 오부세의 梅洞山 岩松院에⁹⁾ 전하는 한편, 개별 書幅과 畫讚을 통해 많은 작품이 남아 있다. 이것들은 최근에 출신지에서의 편찬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다.¹⁰⁾ 그러나 그에 대한 소개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문학 방면의 소양에 한정하여 살피기로 한다.

코잔은 『詩韻含英』 외에 다양한 운서, 시학서를 수장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유서로는 ‘李攀龍 編集’이라는 제목의 『韻學淵海大成』 명판본이 있다. 이반룡은 왕세정과 함께 고문사를 제창한 인물이다. 이 『韻學淵海大成』은 1578년(명, 만력 6) 경에 『詩學大成』과 함께 남경의 劉氏孝友堂에서 출판된 것으로 당시의 전형

8) 코잔의 경우 장서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17종의 印記가 확인되며, 그 중 몇 종류가 小布施町의 高井鴻山記念館에 현존한다.

9) 岩松院은 小布施町雁田山에 있는 曹洞宗의 사원으로 원래 念仏寺였던 것을 1472년(文明 4) 明室覺証이 曹洞宗으로 바꾸면서 禪院으로 하여 岩松院이라 불렀다. 코잔의 귀의와 葛飾北齋가 그린 봉황의 천정화로 유명하다.

10) 高井鴻山伝編纂委員會 編, 1988 『高井鴻山漢詩選集』, 小布施町.

적인 방각본이며 아마도 이반룡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잔이 이반룡의 『滄溟先生集』의 전사본을 일부러 입수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에도 중기 이후 고문사학의 유행에 따라¹¹⁾ 이러한 유서에서 시재를 구한 것 같다.

그러나 고문사파가 주장한 성당시의 추종은 그의 장서에서는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백과 두보의 시조차도 치바 운카쿠(千葉芸閣)의 『李杜四聲韻選』을 통해서 읽었으며 그외로 중세 아래 일본에서 유행한 송의 周弼 編 『唐賢三體詩法』을 참고한 정도이다. 張九齡의 『曲江張先生文集』을 훌륭한 명판본으로 수장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이다.

唐詩 뿐만 아니라 황정견의 『山谷詩集』과 文天祥의 『文文山文鈔』, 그 밖에 范成大, 楊万里, 陸游의 작품을 모은 『宋三大家絕句』를 수장한데서 송시에도 일정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三大家絕句』는 에도 후기에 송시를 모범으로 한 性靈清新派 시인인 오오쿠보 시부츠(大窪詩仏)¹²⁾ 등의 편집이라는 점에서 코잔 생전에 유행하던 책이라 한다. 그리고 문천상의 문장은 막부 말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유행하였는데, 코잔의 장서도 1860년(万延 元) 경에 목활자로 간행한 선집이었다. 이 또한 다른 의미에서 당시의 풍조를 말해준다.

코잔의 장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시에 대한 관심이다. 예를 들면 左克明의 『古樂府』 필사본과¹³⁾ 沈德潛 편집의 『古詩源』 청판본을 수장하는 등 관련 서적의 입수에 힘을 쏟고 있다. 메이지 시대가 되어 동경으로의 출사를 희망한 코잔이 문부성 편집국의 면접을 보았을 때 장문의 고시를 피로하여 면접관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¹⁴⁾ 그 밖에도 고풍의 작품들이 남아 있어 장서의 특색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李東陽의 『李西涯擬古樂府』의 활자본을 참고하고 있는 점을 볼

11) 명대 중기의 문학운동인 고문사학은 일본에서 에도의 오규 소라이와 그의 문하인 譾園派 시인들에 의해 강하게 주장되어 경학으로까지 확대되고 실천되었다.

12) 大窪詩仏(1767~1737)는 에도 후기 시인으로 山本北山에게 배우고 송시를 전범으로 하는 清新의 시풍을 유행시켰다. 시작의 한 방법으로 宋·金 시대의 시집을 교정하여 다수 출판하였다.

13) 이 책은 그 발문을 볼 때, 1736년(元文 元)에 井上石溪가 昌平齋 교관 林鳳谷의 수장서인 중국본을 사용하여 전사한 책으로 추정되는데, 石溪의 필적이 확실치 않아 확정할 수는 없다.

14) 주1)의 「鴻山傳」 참조.

때 명문인의 擬古에서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

동시대 일본인들이 지은 한시문집은 코잔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인물의 작품과 당시 유행하던 작품들을 수장하고 있다. 전자는 야나가와 세이간(梁川星巖)의 『星巖詩存』과 하야시 카쿠료(林鶴梁)의 『鶴梁文鈔』, 후자는 타치 류완(館柳湾)의 『柳灣漁唱』과 후지타 토우코(藤田東湖)의 『回天詩史』 등이다. 세이간과 토우코의 작품은 막부 말기의 정세를 걱정하는 勤皇派의 지사들에게 애송되었었는데, 코잔 자신은 개국의 현실성을 인정하며 그 과정에서 막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등 다양한 작품을 즐기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5) 佛學

여기서는 코잔의 불교에 대한 관심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한학의 장점에서 불학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중국 기원의 선종을 배웠을 뿐 본격적으로 경론을 수호하거나 연구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전 중에 본 것은 『楞伽經』과 『圓覺經』 뿐이고 이것들은 둘 다 선종의 대표적 경전으로 특히 전자는 명나라 승려 通潤의 주해서이다.

그 외로 불교의 장서는 『四部錄』, 『參同契註 宝鏡三昧註 洞山大師玄中銘不能語』, 『天童覺和尚頌古報恩老人著語』, 『祇陀大智禪師偈集』 등으로 토우잔 료우카이(洞山良价)와 완시 슈가쿠(宏智正覺)의 저작을 포함하여 거의 일본의 曹洞宗에서 만든 교집본들이다.

이것은 이치무라 가문의 菩提寺인 祥雲寺나 코잔과 친교가 있던 岩松院 등 오부세에 曹洞宗의 사원이 많고, 마츠시로의 번사인 사쿠마 쇼잔과 야마데라 죠잔 등과 함께 上田毘沙門堂의 카츠몬(活文) 禪師에게 지도를 받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카츠몬은 에도와 나가사키(長崎)에 유학하여 文雅를 이해하고 漢語를 배운 승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선학을 즐겼을 뿐 체계적인 불교 연구는 하지 않았다.

6) 書畫

오늘날 다카이 코잔이라 하면 서화예술 방면에서 유명하다. 요괴화를 중심으

로 한 표현주의적인 독창적 세계와 그가 후원한 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강렬한 인상, 호쿠사이의 영향을 받은 화가라는 세간의 평가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나 습작 또한 출신지인 오부세 지역에 많이 남아 있으며 실천적 측면에서 그의 행적이 연구되어 왔다.¹⁵⁾

그의 장서에서 서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살피면 청문인의 제발과 畵人傳을 소장하고 있고, 孫承澤의 『庚子銷夏記』 청판본과 高士奇의 『江邨銷夏錄』으로 볼 때 상고적 문인의 서화감상에 모범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는 書畫原本의 저작이라는 고증적 측면이 있고 새로운 서화 연구의 태동을 알리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금석이나 서화 속에서 고대 왕후나 晋唐이래 문인의 격조를 느끼려 하는 전통적인 틀을 즐겼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도 중기에 유행한 南蘋派¹⁶⁾ 宋紫石의 선집과 관계있는 『方于魯墨譜』을 애장했던 점을 보면, 명대에 전개된 文雅의 여러 모습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청대의 새로운 작자를 논한 張庚의 『國朝畫徵錄』도 토토키 바이카이(十時梅厓) 등의 훈점본으로 소장 범위에 들어와 있었다.

구체적으로 코잔의 畵業을 보면, 가야금과 시서화에 능통하며 전각가로서도 저명한 승려 杜濬이¹⁷⁾ 편집한 남화의 화법을 설명한 『清圓閣畫學叢說』을 필사하고 있는 점에서 그 기법의 연원을 살필 수 있다. 杜濬은 南蘋派의 사생적 화풍을 이은 나가사키의 畵僧으로서, 건륭 연간 강남의 화법이 에도 말기 信州 문인의 표준이 되었다.

서법에서의 코잔의 기량을 보면 상당한 훈련을 쌓은 것 같다. 그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장서는 이데 가케이(井出臥溪)가 저술한 『草書淵海』, 시라가와 시잔(白川芝山) 원작의 『歷代草書選』 등 字書 방식의 편집에 의한 통속적 서법집인데

15) 高井鴻山, 1932 『高井鴻山先生遺墨集』, 高井鴻山遺墨集刊行會 등 참조.

16) 1731년(享保 16) 나가사키에 내항한 청나라 화가 沈銓(号 南蘋)에게 배운 일본 漢畫의 유파.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精緻濃彩의 화조화를 제작하고, 화가 宋紫石을 통해 에도 화단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

17) 杜濬(1748~1816)은 黃檗宗의 선승이었다가 환속하여 中江松窯라 불린 서화가이자 전각가. 나가사키에 내항한 청나라 사람인데 宋紫石의 제자 董九如에게 그림을 배웠다. 杜濬의 편집과 관계된 『清圓閣畫學叢說』의 글씨는 코잔의 장서가 유일본으로 보인다.

후자는 코잔이 직접 재편하여 필사한 것이다. 그의 연습은 비교적 자유로운 실천에 따른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 코잔은 보다 순수하게 ‘화가’였던 호쿠사이와는 달리, 가업을 유지하고 ‘칼을 차는 것(帶刀)’을 허가받은, 비록 그 재산을 배경으로 하였다지만 에도와 교토, 마츠시로의 학자와 문인들과 동등하게 교류하는 명사로서 서화를 접하였다. 서적과 나가사키를 창구로 하는 명청 예술과의 교류를 배경으로 문인들의 서화를 음미하고 南蘋派의 사생을 배운 실천적 훈련을 바탕으로 독특한 작품이 만들어 졌던 것이다.

7) 코잔의 한학 경향

장서를 통해 살핀 코잔의 한학은 유학과 문학, 서화 방면에 특색이 있으며, 유학의 경우는 주자학을 종으로 하면서 그 틀 안에서 양명학을 가미한 것이었다. 이는 사토 잇사이의 문인이라는 그의 경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역시 四書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그 밖에 한적의 훈점본 수용을 중심으로 하고 國字解를 포함한 에도 후기의 일본인 주석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학 방면에서는 고문사파나 성령파를 주로 배웠고 에도 중후기의 조류에 따라 당송의 고전 작품을 중시했다. 또한 정밀한 교감, 주해 보다는 당송의 작품을 규범으로 하여 작품 창작에 중점을 두고 고시의 습득에 애를 썼다는 특색이 있다. 그 활동을 보면 詩韻에 관한 책과 유서류, 선집을 중시한 점이 엿보인다. 서화 부문에서는 명청의 문인화 정신을 기조로 하여 선집과 훈점본을 참고하여 실제 작품 창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어학 방면에서 한어와 한자의 연구는 직접 다루지 않고, 불교에 대해서도 曹洞宗의 선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노장사상이나 그 밖의 고전사상은 대충 참고만 했을 뿐인 듯하고 역사학에 대해서는 『자치통감』 재편서와 『十八史略』을 참고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코잔의 한학 편중은 그 이력과 실천에 따라 생긴 특색도 있지만 에도 후기까지의 편집·주석·훈독·출판 사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출신지

오부세와 교토 및 에도를 오가던 부유한 지식인의 藏書 활동 통하여 당시 한학이 지방으로 전파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코잔의 和學과 난학

1) 和學의 발전

일본 근세의 학문은 중세까지의 불경 연구에서, 유학을 바탕으로 한 속세의 한학으로 옮겨간 것이 특색이다. 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 에도 전기 이후 점차 일본의 고전 연구도 정교함을 더하고, 학문의 체계와 사회 조직을 이루었으며, ‘국학’이라고 불리는 운동을 일으켰다.

한편 중세 이래로 公家가 담당해 온 궁정의 양식, 즉 와카(和歌), 모노가타리(物語, 이야기)라는 궁정의 문학을 전하는 고전학도 존속하여 그 해석과 보급·재생으로써 歌道와, 고전의 변주·확충으로써의 連歌, 俳諧, 擬古文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과 상술한 국학을 합쳐 넓게 和學이라고 한다면, 코잔의 장서는 이러한 和學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 歌道의 기호

코잔의 장서 중 가장 많은 것은 와카와 관련된 책이다. 다만 전문 歌人과 歌學者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궁정 와카의 중심이 되는 ‘勅撰和歌集’을 보면¹⁸⁾ 『古今和歌集』과 『新古今和歌集』 및 13代集의 選歌注를 수장했고 고대 와카의 총집인 『만엽집』 또한 선집이나 주석의 일부가 있을 뿐이다. 분량이 많은 古歌의 찬집으로 알려진 『未木和歌集』은 초록본의 판본을 수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색이 있는 것은 12세기 초 후지와라노 도시나리(藤原俊成) 등이

18) 천황의 칙명에 따라 古歌와 당대의 和歌를 함께 선발하여 四季와 연애를 중심으로 한 類目에 따라 편집한 선집. 10세기의 『古今和歌集』부터 15세기의 『新續古今和歌集』에 이르기까지 21대를 헤아리는 궁정 和歌의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新古今和歌集』까지의 8대와 그 이후의 13대를 따로 부르는 관습이 있다.

평가한 『六百番歌合』과 당시의 가단을 이끌었던 고토바텐노(後鳥羽天皇)의 『後鳥羽院御集』을 갖춘 것으로, 이를 통해 『新古今和家集』 시대의 와카를 중시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장서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歌學書 종류로, 해이안 시대의 『袋草紙』는 고전적 작품이지만, 에도 전기의 歌學者인 아루가 초하쿠(有賀長伯)가¹⁹⁾ 편집한 『歌枕秋のねさめ』, 『初學和歌式』, 『浜のまさに』, 『和歌八重垣』 등 실제 창작에 도움을 주는 편저가 주를 이루었다. 이 외로도 주제에 따라 분류·선정되고 中本 형태로²⁰⁾ 출판된 하치야 유겐(蜂谷又玄)의 『草庵集類題』 보다 중세 堂上의 가풍을 대표하는 돈아(頓阿)의 『草庵集』이 더욱 참고가 된 것 또한 그의 歌道에 대한 기호를 보여준다.

고전보다 근세의 歌人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鈴屋歌集』, 카토 치카게(加藤千蔭)의 『宇家良我波奈』, 무라타 하루미(村田春海)의 『琴後集』, 모토오리 하루니와(本居春庭)의 『後鈴屋集』, 傳寫된 시미즈 하마오미(清水浜臣)의 『泊泊舍集』을 각각 모았던 것은 和學者에 의한 歌作을 참고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3) 모노가타리(物語)와 소설

와카와 함께 일본어로 쓰인 고전을 대표하는 모노가타리 종류는 『竹取物語』, 『伊勢物語』, 『源氏物語』라는 매우 중요시되는 고전들이 수장되었다. 『이세(伊勢)』와 『겐지(源氏)』는 각각 에도 전기의 和學者인 기타무라 키진(北村季吟)의 주석서 판본으로 수용되었다. 주석과 출판을 통한 고전의 보급에 대한 키진의 공헌은 여기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모노가타리라 불리는 작품에서도 사원의 설법 등 종교행위와 관련한 전승문학인 『今昔物語(集)』 倭部와 『保元物語』, 『平治物語』 등은 소설적 흥미에서 읽었다고 생각되는데, 에도시대의 작품 중에서는 『通俗三國志』, 『繪本

19) 有賀長伯(1661~1737)은 에도 전기 교토의 가인. 下流의 宮廷奉仕者인 地下人이지만 歌學에 능해 교토에 문인이 많았다. 노래를 짓는 실천적 입장에서 歌書를 재편하고 '七部書'라고도 불리는 다수의 편저를 출판하여 널리 알려졌다.

20) '中本'은 종이의 판형에 유래한 일본 근세의 책 형태 중 하나로, '美濃判'이라고도 불리는 용지를 반으로 접은 12×8 cm 정도의 소형 책자를 말한다.

『豊臣勳功記』, 『賴光朝臣勳功圖會』 등 ‘讀本’이라 불리는 통속소설의 일부가 남아 있다. 다만 더욱 오락적인 내용인 草雙紙 종류는 장서 중에 전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문학에 대해서도 일부러 청판본 『태평광기』, 『西遊真詮』을 입수하여 해독하고 있는 모습에서 和漢을 통한 소설적 흥미가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잡학적인 견문집과 고증 서적의 수장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국학의 접수

이치무라 가문(市村家)에서는 코잔의 숙부인 이치무라 야스미츠(市村保光)가 가모노 마부치(賀茂眞淵)에게 배운 아라키다 히사오유(荒木田久老)에게 입문하면서 국학에 빌을 들였다. 히사오유는 이세 신궁의 神官 가업을 잇고, 마부치에게 입문하여 『만엽집』의 연구를 계승하였으며, 만년에는 시나노(信濃)로 내려가 활동하였다. 야스미츠는 이 시기 히사요우의 문인이었으니, 코잔의 장서 중 야스미츠가 필사한 마부치의 『文案(縣居集)』이나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美濃のいえづと折添』 전사본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²¹⁾ 위에서 언급한 가집에 가토 치카게(加藤千蔭)나 무라타 하루미(村田春海) 등 마부치 문하의 가인들이 보이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집안의 국학으로의 경사에 영향을 받은 코잔은 마부치의 『萬葉集考』와 마부치의 문인 가토리 나히코(楫取魚彥)가 지은 古語 사전 『古言梯』를 수장하였다. 동시에 마부치가 죽은 후, 에도 후기 가장 성행했던 모토오리 노리나가와 그 집안 인물들의 저작도 다수 수장하였으니, 노리나가의 『古事記傳』과 『新古今集美濃の家づと』, 모토오리 하루니와(本居春庭)가 지은 고어 문법 연구서인 『詞八衢』로 학습하였다.

또한 유파에 구애받지 않고, 고전적 和語 연구서인 게이추(契沖)의 『和字正濫要略』을 필사하고, 코잔과 동시대의 저명한 학자인 다치바나 모리베(橘守部)의 『神樂歌入文』을 수장하는 등 국학 방면의 연구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종

21) 『美濃のいえづと折添』는 本居宣長가 勅撰 和歌十三代集으로부터 選歌하여 주석을 붙인 책으로, 비록 宣長는 久老와 대항하는 관계였지만 그의 학설은 연구되었다.

합해 보면 코잔 시대의 국학 수용은 특정 인물과의 사제관계보다는 판본의 유통에 따른 개인적인 독서경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5) 역사와 제도에 대한 관심

코잔이 소장한 일본서 중에는 중세 이전 일본의 역사에 관한 책이 많이 보여, 중국사 서적의 소략함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고대사의 주석인 『釋日本紀』, 고대 법제의 운용을 기록한 『延喜式』, 중세 전기의 막부 경영을 기록한 『吾妻鏡』, 중세 武家法의 기초가 되는 『御成敗式目』 등 일본사 연구의 사료들을 참고하고 있다.

그 중에는 법제에 대한 관심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는 요동치고 있는 막부 말기의 사회 정세를 겪으면서 정치제도사에 주목하고, 정치적인 역사관을 형성한 것이 배경이 된 것이다. 중국사에 대해서도 청판본인 『上諭條例』나 화각본인 『福惠全書』를 배우며 제도와 관직에 정통하고자 한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정치적인 역사관을 보여, 尊王攘夷 사상의 근거가 된 라이 산요(賴山陽)의 『日本外史』와 『日本政記』, 아오야마 누부유키(青山拙齋)의 『皇朝史略』에 관심을 보이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幽囚錄』을 읽는 등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있었다.

이는 에도 후기 지식인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한문학 부분에서 다루었던 야나 가와 세이간(梁川星巖)과 후지타 도코(藤田東湖)의 문집도 정치적 표출로 읽혔다. 코잔의 주변에서 마쓰시로 번사인 야마테라 죠잔이 병법가 히라야마 헤이겐(平山兵原)의 史評 『宋史臆斷鈔』를 활자 인쇄하여 코잔에게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6) 해외로의 시선

사회변혁에 대한 요망이 국내에 충만하고 외국선의 내항이 빈번한 가운데, 에도 후기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해외의 사정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다. 종래 나가사키를 통하여 중국 및 네덜란드와 통상을 해왔던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가져 온 지식과 책에서 도움을 받아 왔는데, 享保 연간(1716~1736)에 크리

스트교와 상관없는 서양서가 수입되고, 학습이 해금되면서 실용 학문을 중심으로 한 난학이 발흥하였다. 주로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과 의학, 그리고 본초학에 대한 것이었다.

당초 해외 사정의 섭취는 세계와의 접촉이 빨랐던 중국의 책을 매개로 행해졌다. 코잔의 장서 중 『古今說海』 제15를 필사한 『眞臘風土記』는 지금의 캄보디아 地誌인데, 이 책은 원래 元나라 周達觀의 저서로 종래의 한적을 통한 세계 인식의 형식이었다. 이것이 막부 말기에 유행한 『海國圖志』를 보면, 이 책은 지리학자 휴 머레이(Hugh Murray)의 원작을 청의 林則徐, 魏源이 편역한 것으로, 한문으로의 번역을 통해 서양의 저작이 일본의 지식인들에게도 도움을 준 것이다.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서는 에도 중기까지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이 또한 새로운 현상에 해당한다.

에도 중기인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나가사키에서의 통상에 관여한 ‘오란다 통사(阿蘭陀通詞)’ 중 네덜란드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에 주재하는 의사를 면회하여 서양의 理化學을 배우는 사람도 나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토와 에도까지 전해졌으니 주로 의사들 사이에서 난학이 크게 이루어졌다.

코잔도 의학을 중심으로 난학에 관심을 기울여, 1810년(文化 7) 즈음 난학의 보급에 공헌한 蘭方醫 우나가미 즈이오(海上隨鷗)가 번역한 사전인 『하루마와게(ハルマ和解)』를 간단히 요약한, 후지바야시 후잔(藤林普山)의 『譯鍵』의 범례와 부록인 『蘭學逕』을 해독의 길잡이로 하여 많은 난학서를 모았다.

당시 한학자는 한방이나 본초학 책을 해석하기 위해 의약에도 정통한 사람이 많았다. 코잔도 전통적인 한방과 그것을 이어받아 일본에서 발달한 和方 책을 참고했으나, 그보다 더욱 蘭方에 큰 기대를 걸었던 듯하다. 『西醫略論』, 『西醫今日方』, 『和蘭用藥便覽』, 『藥名早引』, 『泰西方鑑』, 『扶氏經驗遺訓』, 『袖珍內外方叢』, 『生理發蒙』, 『穆氏藥論』, 『痘篤兒藥性論』, 『衛生新論』, 『癰藥引痘新法全書』, 『侃斯達篤』, 『療治瑣言』, 『內科提綱』 등 그가 소장한 많은 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후지바야시 후잔, 오가타 고안(緒方洪庵)과 같은 난학자의 번역서가 차례차례 출판되어 휴헨란드, 프랫헤와 같은 네덜란드 의학자의 저서가 소개되었고,²²⁾ 극

소수였지만 우다가와 요안(宇田川榕菴)이 번역한 화학서 『舍密開宗』과 식물학서인 『植學啓原』도 전래되어 서양의 자연과학 일부가 일본에 알려졌다.

의학방면에서의 코잔의 관심은 和漢方과 蘭方의 병용 및 절충을 목표로 한 하나오카 세이슈(華岡青洲)의 저작이 필사된 점에서 볼 때도 어디까지나 의료의 실천에 향해 있었다. 그러나 난학을 통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처음 존왕양이의 유행을 따랐던 코잔이 사쿠마 쇼잔(佐久間常山) 등의 영향도 받아 개국론으로 변하는데 그 바탕을 이루었다고 추측된다.

코잔은 양이론이 들끓던 막부 말기의 세태 속에서, 오쓰키 겐타구(大槻玄澤) 등이 러시아에 표류했던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環海異聞』을 필사하고,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의 홋카이도와 쿠릴(千島), 가라후토의 탐색도인 『東西蝦夷山川地理取調圖』를 입수하는 등 해양 방어책을 구상하였는데,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개국론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幕藩 체제의 방축과 전면적인 개국을 결단한 메이지 유신 이후 鴻山의 관심은 신정부와 밭맞추듯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중시하여 英學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홋카이도 開拓使가 편집한 『英和對譯辭典』을 입수하고, 새롭게 수입된 미국의 세계지리 역사 교과서인 『UNIVERSAL HISTORY, ON THE BASIC OF GEOGRAPHY』를 번역하였으며, 교육자로서는 사범학교에 『萬國地誌略』을 채택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文雅에 젖어가면서 양명학의 ‘지행합일’을 가슴에, ‘존왕양이’의 뜻을 불태웠던 코잔이었으나, 막부 말기의 혼란에 처해서는 해양방어론에서 개국론으로 전환하여 메이지 유신으로의 적응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서적을 모으고 연구하는 매일매일의 훈련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코잔의 장서는 서책문화를 기반으로 시대에 마주하며 자립했던 지식인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2) 원저자 중에는 프로이센이나 잉글랜드 출신자도 있지만 각각 네덜란드어판에서 번역되어 있기에, 그러한 의미에서 난학의 범주에 넣었다.

5. 코잔문고에 나타난 서적유통 양상

1) 唐本의 수용

마지막으로 다카이 코잔의 장서와 당시 서적 유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장과 3장에서 다루었던 코잔의 장서는 따로 기술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목판본으로 서점에서 간행된 것이다. 저자나 家塾의 소장판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인 서적의 제작과 판매는 교토·오사카·에도의 출판 서점들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일본과 중국의 고전과 실용서 및 난학서가 이 세 도시의 방각본(町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일본 문화사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예외적인 정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잔문고에는 상당수의 唐本(중국책)이 존재한다. 모두 명청대의 판본으로 그 수량은 총 15부 184점으로 전체 한적 71부 480점에서 1/3이 넘는 비율이다. 나머지 2/3는 모두 일본서이다.

중국본 중 5부 58점은 명대의 판본이며 나머지는 청판이다. 명판 중 『曲江張先生文集』은 에도 전기의 유학자인 히토미 치쿠도(人見竹洞)의 구장서이고, 『石倉歴代文選』은 에도 후기의 시인인 오쿠보 시부초(大窪詩佛)의 구장서와 연결된다. 19세기 전반을 살았던 코잔의 시대로 볼 때 명판의 대부분이 일찍 수입되어 일본 국내에 전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지식인에게 수장되어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이동한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싶다. 위에서 언급한 두 책의 수장도 에도 관학에 직접 참여했던 문인과의 교유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한편 청판본 중 『古韻溯源』과 『古詩源』 두 책에는 오사카 서적 판매소의 겸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되어 교토 부근에서 판매된 것을 코잔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책에 비해 중국책의 입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 책의 입수에 특별한 뜻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古詩』의 제작은 코잔의 시업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다만 에도 후기에는 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교토, 에도와 관계가 있던 코잔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 지방에서도 중국본의 입수와 수용이 가능했던 정황을 말해주고 있다. 다층적인 중국본의 유통이 이미 일본 국내에 성립하였던 것이다.

2) 필사본의 의의

코잔문고 중 31부 80점은 필사본이다. 판본 혹은 활자본인 나머지 199부 1,060 점과 비교할 때 수량은 적으나 종류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세기 상업출판이 발흥한 이래 일본에서는 판본 유통의 시대가 된 것이 확실하지만, 한편으로 판본의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전승을 배경으로 한 경우 필사본을 통한 책의 입수가 이루어져 판본의 유통을 보완하였다.

첫 번째로는 이미 필사된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다루었던 左克明의 『古樂府』 전사본은 元文 원년(1736) 昌平坂學文所에서 배웠던 이노우에 세키케이(井上石溪)가 교관인 하야시 호코쿠(林鳳谷)의 가장본을 허락받아 필사한 책, 또는 그것을 전사한 에도 중기의 사본인데, 코잔은 어떠한 기회로 이 책을 얻어 소장하게 되었다. 『고악부』는 일본에 소량의 명판본이 들어왔을 뿐이기에 혜택 받은 환경이 아니면 이 책을 참고하기 어려웠으나, 에도 중기 학자의 노력으로 필사되어 이후 코잔의 詩囊을 살찌우게 하였다.

그러나 코잔의 장서에 포함된 필사본의 대부분은 에도 후기에서 막부 말기 및 메이지 시기 즉 코잔이 살았던 시대의 것들로, 에도 중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5부 9점에 불과하다. 그 외 나머지는 당시 세상에 유통하던 필사본을 소장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코잔 주변에서 필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5부 29점은 코잔 자필의 필사본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판본의 입수가 어렵다는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장하고자 했던 코잔의 의지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명나라 馮柯의 『崇正書院翻刻馮貞白先生求是編』은 1650년(慶安 3) 교토의 서점인 무라카미 헤이라쿠지(村上平樂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있고 후쇄본도 약간 간행되었지만, 코잔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미 입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양명학에 관심을 둔 코잔은 1844년(天保 15)에 이를 직접 필사하였다. 에도 학자의 이러한 필사 활동은 막부 말, 메이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지속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전사본의 존재는 책을 향한 학자의 욕구를 직접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의가 있다.

물론 출판에까지 이르지 못한 일회적인 활동의 기록, 혹은 거기에 준하는 내용도 필사본의 형태로 남는다. 예를 들어 『비오는 밤의 벗(雨夜の友)』의 경우는,

1803년(享和 3) 후지와라 치카요시(藤原周義)라는 미상의 인물 주변에서 가나 문학의 고전인 『오치쿠보 모노가타리(落窪物語)』의 윤독회가 있었는데 그 완독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읽혀진 와카의 집성본이다. 이른바 취미로 한 和學의 기념지 성격의 가집이나, 무명씨의 학문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필사본에서는 판본으로 나타나는 학설의 동향 이외에도 수면 아래의 문화 조류를 알 수 있다는 의의가 숨어 있다.

3) 활자인쇄에 나타난 의지

일본의 활자 인쇄술은 조선의 기술을 받아들여 근세 초(17세기 초)에 간신히 확립되었다. 이 시대의 활자 인쇄본을 ‘고활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고활자판의 유행은 상업출판의 성립을 촉진한 획기적인 역할을 마친 후에도 전기에 이르러 침체되었다. 그 후 목판인쇄가 출판의 대부분을 점유한 시기가 계속되었다가, 에도 후기(19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활자 인쇄가 각광을 받게 된다.

다카이 코잔의 생애는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장서 중에는 몇 종의 활자본이 확인된다. 그 수량은 6부 7점으로 매우 적으나 이 시대의 활자 인쇄에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인정된다.

먼저 활자본의 인쇄는 판본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적은 수량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수장은 발행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토 잇사이의 『小學書欄外書』는 잇사이의 원고본을 그의 문하생인 渡辺楳가 발행한 것으로 코잔과 동문의 간행이다. 여기에 이 책의 개정을 더한 책도 함께 소장하고 있는 점에서 그 깊은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또한 1858년(安政 5)에 『李西涯擬古樂府』를 간행한 田口江村은 에도의 사숙 聯腋書院에서 이 책을 활자로 인쇄하였는데, 그는 코잔의 동지로서 유신 이후 도쿄의 다카이 학교의 설립에도 협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에도의 병법가 히라야마 헤이겐(平山兵原)의 『宋史臆斷鈔』를 간행한 야마데라 죠잔은 헤이겐에게 병법을 배우고, 잇사이의 문인들과도 교류했던 마쓰시로의 번사로, 번 내의 동지와 함께 如蘭社를 세워 병학서를 간행했다. 그는 원래 코잔과 맹우로 해양방어와 양이책을 견지하였기에, 결국 개국론 입장

인 사쿠마 쇼잔과 거기에 동조했던 코잔과는 갈라섰지만 이렇게 그 뜻을 공유하던 시절도 있었다. 또한 1860년(萬延 원년) 경에 시마바라(島原) 출신인 요코야마 도쿠케이(横山徳溪)가 당시 유행했던 송말의 廷臣 文天祥의 문장을 골라 주위에 배포했던 것도 일종의 志士 간의 교류일 것이다.

이들 활자본은 막부의 허가를 받은 목판인쇄본과는 달리 에도 후기의, 정권에 대립하며 자립을 강조했던 지식인과 지사들의 미디어로, 상업적인 유포와는 구분되는 개인이나 사숙 및 결사 간의 서적 유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에도 후기 信洲로의 서적 보급

근세에 발흥했던 상업 출판의 물결이 街道의 구석까지 미쳐 일본·중국·난학의 각 분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은 코잔 장서의 전반에 걸쳐 확실하게 드러난다. 여기서는 중국본, 필사본, 활자본의 역할을 서술하며 서적 유통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만 코잔은 출신지 제일의 富商으로 군림하면서 마쓰시로 번사와 교토 및 에도의 명문가, 명사들과 교류하던 특출난 인물이기에, 장서의 현존이 불완전하다는 점이 아니더라도 서적 유통의 일반적인 모습을 쓸기에는 적절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막부와 大名(大名), 번교, 寺社 등의 체계적인 장서와 비교할 때, 당시 세상에 유통되던 서적을 바탕으로 수집하고 있던 점은 분명하며, 거의 개인의 힘과 지식으로 만들어간 장서였다는 점에서 코잔문고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이기는 하나, 코잔의 장서에 보이는 두 개의 印記를 지적하고 마무리 하자 한다. 그 첫 번째는 한적 『通鑑擊要』의 탄바 사사야마(丹波篠山) 번판을 오사카의 서점에서 후쇄한 책에 찍힌 「善光寺大門町薦屋伴五郎」이라는 墨印이다. 이는 판목의 주인이나 도매 서점이 아니라 판매한 서점의 취급 인장인데, 코잔은 나가노의 젠코우지몬마에(善光寺門前)에서 이 책을 구했던 것 같다. 다른 하나는 『繪本豊臣勳功記』에 찍힌 「信州善光寺 山田屋仙之助」라는 묵인인데, 이 책은 판화 삽화를 상품으로 하여 오락에 주력했던 史傳의 読本으로 세책상인 야마다센노스케(山田屋仙之助)의 취급인인 듯하다. 이들 印記는 대

도시와의 연결을 알려주며, 門前町長野에 늘어 선 서점의 변성이 코잔의 장서 일부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방면의 자세한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카이 코잔(高井鴻山), 장서, 출판, 양명학, 나가노(長野)

투고일(2015. 11. 9), 심사시작일(2015. 11. 17), 심사완료일(2015. 11. 30)

〈Abstract〉

Circulation of Books and Scholarships in Pre-modern Japan

- A Summary of the Library Collected by Takai Kozan -

Sumiyoshi Tomohiko *

Takai Kozan(高井鴻山), well-known for his literary works and arts, was born in late Edo era. He studied both in the traditional Kyoto and the capital, Edo, and made lively economic and literary activities. His activities reflect in detail the circulation of the central culture in provinces, based on the circulation of books.

His literary collection reveals that his study was affected by Confucianism. His interest in nationalism, Chinese letters and paintings, poetry, novels, international politics, and western natural sciences reflects the prevailing taste of provincial scholars.

His collection comprises mostly wood block printings from Kyoto, Osaka, and Edo, while some are wood types and handwritten transcripts. These works display the propagation of the central publishing culture. Various Chinese versions reflect the progress of circulating Chinese literature in Japan and the books showing the book marketing in Nagano region provides the detailed view of the provincial book circulation in those times.

Key Words : Takai Kozan, Collection of books, Publication, Yangmingism, Nakano

* Professor, KEIO Institute of Oriental Classics, Keio University.